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 계획

남궁서영*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소비자 주거학과 석사과정 졸업)

최 정 신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 주거학 전공 교수)

본 연구는 도시 주거환경의 고밀화, 획일화, 이웃과의 단절, 노인소외, 놀이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웃 공동체적 삶이 가능한 주거단지로 새로이 대두된 코하우징을 소개하고, 코하우징 단지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공동생활시설(common house)을 계획하고자 시도되었다. 우리나라의 생활환경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공동생활시설을 계획·디자인 하여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코하우징 단지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주거단지에서도 더불어사는 공동체 운동의 활성화와 발전적 주거환경의 대안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본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실제 공간디자인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문헌을 통하여 외국에서의 코하우징의 일반적 발달과정과 특성을 소개하였고 설문조사에서는 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189명을 대상으로 코하우징의 선호도와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의 공유공간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 보았다. 디자인 단계에서는 문헌과 국내외 현지 답사를 통해 수집한 기존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 자료를 평가하고 결론적으로 경기도 인근의 동호인 주택단지를 선택하여 그 마을에 적합한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 디자인 안을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주변 공유공간은 그 종류가 제한되어 있었으며, 공유공간의 사용실태 또한 매우 저조하였다. 특히 기초생활 공유를 위한 공간이 일반 주거단지의 공유공간으로 제공되는 예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현대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인 어린이 놀이터, 노인복지공간 등은 대부분의 주거단지에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의 요구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기초생활 공유를 위한 공간보다는 이웃공동체 문화 육성을 위한 공간과 현대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전 가능한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은 외국의 것과는 차별화를 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코하우징 공동체의 국내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홍보, 일반인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운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디자인 안에서는 공동생활시설이 동호인 마을 내의 주민들의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위한 물리적인 중심점 역할은 물론, 인근의 기존 마을 주민들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공동체 생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